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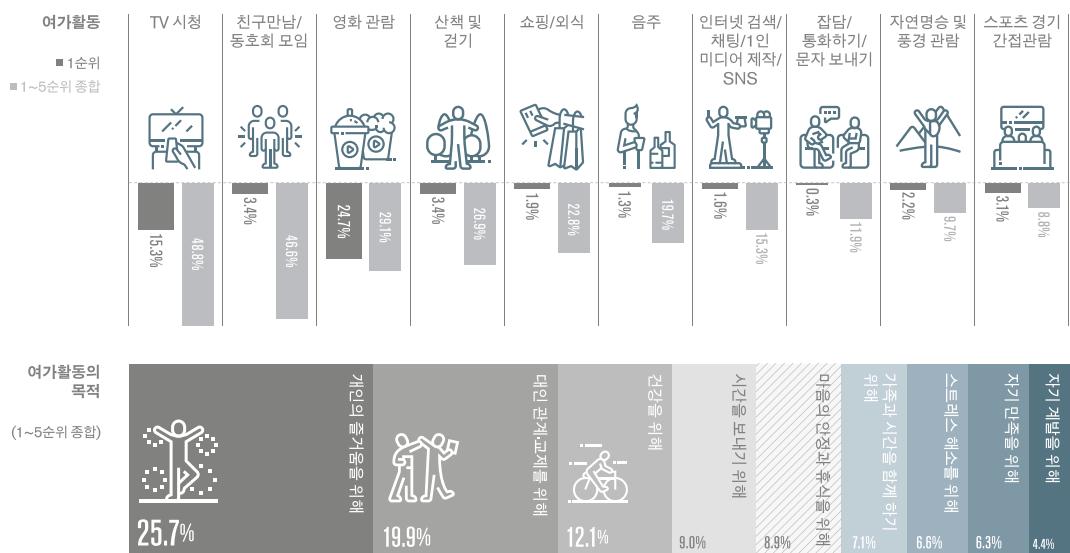
세종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?

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 인식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세종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세종시민 320명을 대상(만 20세 이상 59세 미만)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.

조사는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,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24일 동안 이뤄졌다.

Q 세종시민은 어떤 여가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까?

(중복 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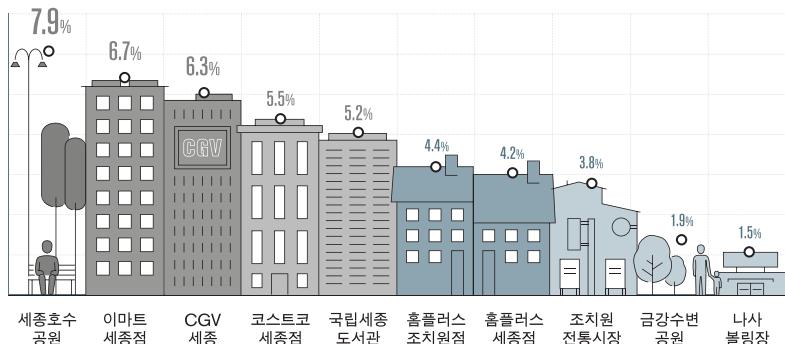
A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TV와 영화 등 영상매체 시청과 친구 동호회 모임

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세종시민들의 여가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'영화 관람'으로 나타났으며, 1~5순위를 종합한 기준으로는 'TV 시청(48.8%)', '친구 만남/동호회 모임(46.6%)', '영화 관람(29.1%)', '산책 및 걷기(26.9%)', '쇼핑/외식(22.8%)' 순으로 나타났다. 여가활동 목적으로는 '개인의 즐거움을 위해(25.7%)'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'대인관계·교제를 위해(19.9%)', '건강을 위해(12.1%)' 순으로 나타났다. 여가활동과 그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,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영상매체 시청이 세종시민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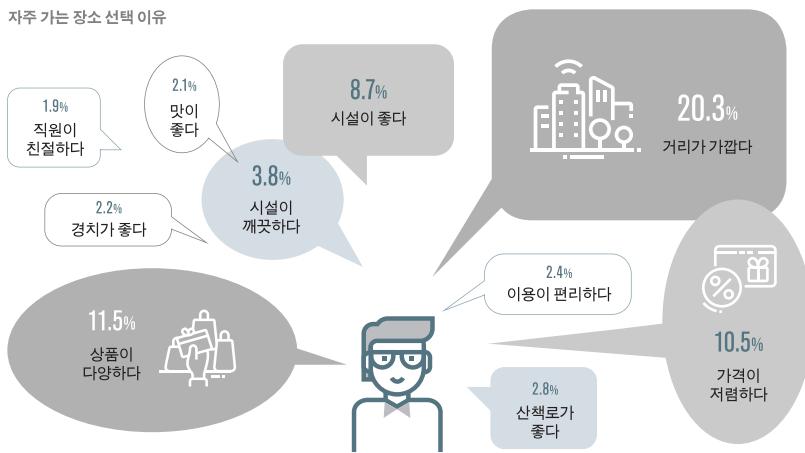
Q 세종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는?

(중복 응답)

자주 가는 장소



자주 가는 장소 선택 이유



A 장보기, 쇼핑을 위한 대형마트 또는 시장을 자주 갑

세종시 내에서 세종시민이 자주 가는 장소로 총 269곳이 언급되었으며, 이 중에서 '세종호수공원(7.9%)'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. 그 다음으로는 '이마트 세종점(6.7%)', 'CGV 세종(6.3%)', '코스트코 세종점(5.5%)', '국립세종도서관(5.2%)' 순으로 나타났다. 자주 가는 장소로 많이 언급된 10곳 중에서 7곳이 대형마트 또는 시장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종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장보기 또는 쇼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 자주 가는 이유로는 '거리가 가깝다(20.3%)'가 가장 높게 나타나, 물리적 거리가 이용빈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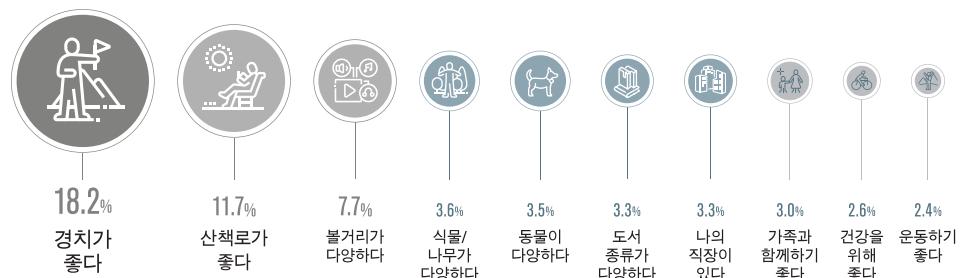
Q 일상생활에서 세종시민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는?

(중복 응답)

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

- ① 베어트리파크
- ② 세종어린이천문대
- ③ 고복저수지
- ④ 세종전통시장
- ⑤ 밀마루전망대
- ⑥ 정부세종청사
- ⑦ 국립세종도서관
- ⑧ 세종호수공원
- ⑨ 금강수변공원
- ⑩ 금강수목원

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유



A 세종호수공원, 베어트리파크 등 공원 및 자연환경이 중요하고 의미 있음

세종시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는 총 122곳이 언급되었으며, 이 중 ‘세종호수공원(25.2%)’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. 상위 10곳 중에 세종호수공원과 함께 ‘베어트리파크(7.7%)’, ‘고복저수지(7.5%)’, ‘금강수목원(7.1%)’, ‘금강수변공원(5.4%)’ 등 자연환경이 52.9%를 차지하여, 세종시민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 중 절반 이상이 자연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.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이유로 ‘경치가 좋다(16.2%)’, ‘산책로가 좋다(11.7%)’, ‘볼거리가 다양하다(7.7%)’, ‘식물/나무가 다양하다(3.6%)’ 등 대부분이 자연환경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
Q 자주 가는 장소,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건축·도시 분야에 주는 의미는?



A 자주 이용하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'장소 만들기-연결하기'에 초점

건축·도시 환경은 자주 이용하는지,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. ①자주 이용하지만 이용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환경, ②자주 이용하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환경, ③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, ④자주 이용하지도 않고 중요한 의미도 없는 환경이다. 이 중 ④의 환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,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축·도시 분야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. 이와 함께 ②의 환경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.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'자연환경'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간들(마트, 도서관 등)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각 생활권 계획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.